

게 낮은 반면, 일반교사와의 관계나 사회적 대우에는 유의하게 높았다. 전체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## 충북지역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학교보건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

청주간호전문대 논문집 제12집, 1986.

유재순

본 연구는 1985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충북 전지역(3개시 및 10개군)에 있는 국민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보건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것이다.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### A. 충북지역 양호교사의 일반적 특성

① 충북지역 국민학교 양호교사들의 연령은 25~29세군이 57.7%로 가장 많았고 간호전문대학(간호학교 포함)졸업자가 93.6%였으며 56.4%의 양호교사들이 3년이상~5년미만의 교직경력을 갖고 있었다.

② 65.4%의 양호교사들이 간헐과 교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고, 국립보건위원의 양호교사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11.5%였다. 양호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9.0%, 조금만족한 경우와 불만족한 경우가 각각 16.7%씩이었다.

### B. 양호교사 근무교의 특성 및 근접 보건의료 시설의 종류

① 양호교사 근무교의 학급수별 분포는 17학급이하군이 67.2%였고 학생수별 분포에서는 400명 미만군이 34.6%로 나타났다. 교원수는 10~19명군이 62.8%였다.

② 각 학교에 근접해 있는 보건의료 시설의 종류는 보건지소, 개인의원, 보건소의 순서였으며 각각 43.6%, 28.2%, 9.0%였다. 근접해 있는 보건의료시설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이내인 경우가 62.8%로써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보건 의료시설이 있었다.

### C. 직접간호기능

①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격검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65.4%였고, 내과 검진은 64.1%의 학교에서, 치과 검진은 30.8%의 학교에서 교의가 담당하고 있었다.

② 각종 건강 검사후 추후관리가 가장 잘 되고있는 분야는 기생충검사후 관리(98.7%)이며 구강검사의 추후관리율은 88.5%였다. 결핵검사, 시력검사, 신체검사의 추후관리율은 각각 96.2%, 97.4%, 94.9%였다.

③ 양호교사 1인당 연간 건강문제관리 건수는 1,180건이었으며 건강문제별 관리 건수 비율은 소화기질환이 31.9% 외상치료가 26.5%였다.

④ 전염병관리 활동으로는 일본뇌염과 간염, 결핵의 예방접종율이 각각 100%, 97.4%, 96.2%였다.

64.1%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96.2%의 학교에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다.

⑤ 양호교사 1인당 실시한 보건교육 회수는 연 평균 26회였으며 주로 실시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기생충질환, 구강위생, 성교육, 전염병관리등 이었다.

#### D. 간접간호기능

① 각 학교에서 연간 지출한 보건위생비는 학생 1인당 334원이었으며 학급수가 적을수록,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위생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. ( $p < 0.05$ ) 이러한 보건위생비는 교원수, 양호실의 규모, 학교보건조직 유무등과 양호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. ( $p > 0.05$ )

② 29.4%의 학교에서만 학교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었고 학교보건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11개교 이었다.

③ 교의와 치과교의가 위촉되어있는 학교는 각각 84.6%, 19.2%였고 이들의 연간 학교방문 회수는 1회 정도였다.

④ 독립된 양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64.1%였으며 양호실의 규모는 54.0%가 10평미만의 좁은 규모였다.

#### E. 양호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

학교보건업무 수행중 양호교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관의 인식부족이 42.3%, 양호설비, 물품 및 예산부족이 23.1%였다.

상기한 결과에서, 효율적인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양호교사의 충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고, 또한 양호교사가 충원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이들이 학교보건 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.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교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.

첫째, 학교행정책임자에게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 학교보건에 대한 이해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한 학교보건 관리 부실이 없어야 하겠다.

둘째, 학교보건 활동에는 인적 자원 못지않게 물적 자원이 충분하게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학교보건 예산 확보 및 양호설비 확보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다.

셋째, 양호교사가 학교의 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함은 학교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양호교사 보수교육 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.

끝으로 학교보건 사업의 인력운용 체계나 법령상의 불합리로 학교보건 요원의 지

도, 감독을 위한 체계적인 기구조직과 전문인이 없는 상태에서 양호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도감독하고 나아가서 학교보건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.

## 학교보건사업수행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

춘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16집, 1986.

### 이 정 애

#### 결론 및 제언

학교보건사업의 수행실태의 일면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내의 양호교사가 배치된, 초·중·고등학교 가운데 77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건강이 교육의 기본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학교는 조사 대상의 84.4%였으며 학교보건사업의 예산은 평균 57만원이었고 그리고 학생 1인당 예산은 평균 472원이었다.

2. 학교보건관계직위원회의 조직율은 76.6%였으며, 학부모와 건강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가 83.1%였다.

학교와 협조관계가 있는 건강기구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대상교의 94.8%로 가장 많았으며, 병·의원과는 84.4%의 대상교에서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다.

지역사회의 수행조직체와는 38.0%가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다.

학교보건사업의 위원전문인으로는 학교의를 지정한 학교가 전체의 83.2%로 가장 많았다.

3.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72.2%의 학교에서 수립되어 있으며, 조절 대책은 49.4%의 학교에서 수립되어 있었다.

4.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5.1%였으며,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54.9%로 나타났다.

사용경험이 있는 교육매체는 슬라이드가 57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.

5. 학교보건사업이 실무책임자가 양호교사인 학교는 90.9%였으며, 양호교사가 독자적으로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는 학교는 7.8%였다.

이상과 같은 분석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.